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하라” 광주이행점검단 결성

광주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사회적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단체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2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광주 이행 점검단 결성식’을 열었다.

단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난달 21일과 29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 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택배 노동자의 한시적 분류 작업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해에만 택배 노동자 16명이 과로로 숨진 데 따른 대책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통해 정부와 택배사

택배사·노조·국회 참여 사회적 합의안 엄수 촉구

“분류작업 충원 미흡...업체별 방문 점검 등 계획”

와 도출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면서 “택배사는 형식적이거나 이달 초부터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모든 업체가 분류 인원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류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려고 하거나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택배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분류 작업 기계의 도입과 분류 인력 보강에 힘써야 하지만, 대리점에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도 마찬가지다. CJ대한통운은 각 물류터미널 별 분류 인원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롯데택배나 한진택배는 분류 인원이 거의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번 합의는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과로에 의한 사망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전 7시 출근이 지속되고 있고, 근로 시간이 줄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에 나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광주 이행점검단 결성식’을 열고 있다.

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는 ▲각 택배사 방문 점검 ▲매주 토요일 오전

출근 홍보 ▲택배물류 터미널 별 여론 조성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단에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진보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 29일 노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마련된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측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발표한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이달 4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당초 CJ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각각 1000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다음달까지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최이슬기자



‘별령한 졸업식’ 23일 서울 건국대학교 앞에서 한 상인이 졸업 축하 꽃다발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 음악학원·콜센터서 잇따라 코로나 확진

위험도 평가 결과 “기본 방역 수칙 지킨 듯”

광주지역에서 음악학원과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시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음악학원에서 4명, 서구의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 음악학원 확진자는 원장과 원생이며 감염경로 조사를 통해 전북 완주군 자동차공장(전북1112번)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우선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했으며, 원생과 강사 등 7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5명

은 음성, 4명 양성,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감염자를 제외한 접촉자 66명 중 42명은 자가격리, 1명 능동감시, 23명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상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날 서구의 보험회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동료 124명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와 함께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다.검사 결과는 24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 평가에서는 콜센터 책상에 성인 키 정도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수시로 환기 등을 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콜센터 근무자들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은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124명 중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11명에 대해 자가격리 통보했으며 44명 능동감시, 69명 수동감시 대상으로 통보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한 음악학원과 콜센터는 폐쇄조치했으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고 거절 공무원 협박한 인터넷뉴스 대표·기자 송치

공무원들 “광고 거절 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및 협박”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광고 요청을 거절한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를 방해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경남 7개 시·군 공보담당 공무원들에게 광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하듯 말하거나 광고비 명목으로 17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 공보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언

론 취재 활동이었으며,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광고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공보담당 공무원들이 광고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고문...‘무서운 10대’ 1심 실형

또래를 모텔에 감금하고 뜨거운 물을 가슴에 붓는 등 고문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공동공갈),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20일 오전 3시에 지인 D(16)군을 불러 모텔비 1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들은 같은날 오전 4시에 모텔에 D군을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D군 가슴에 부었으며, A군과 B군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D군은 전치 2주의 상해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